2026. 5. 4

금융 Weekly Insight

이익 창출 역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기업에 초점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5월 첫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은행, 증권, 보험업종 모두 각각 0.1%, 4.5%, 0.7% 하락. 다만 주가 하락과 달리 은행들의 실적은 양호.
- 부실채권 증가가 우려로 제기되었으나, 양호한 건전성 비율, NIM 확대, 대손비용률 하향안정화 확인. 은행계 그룹 산하 증권사들의 이익이 전분기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호실적을 보인 가운데, 키움증권도 컨센서스를 약 20%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
- Base Case 시나리오 상에서 증권 및 은행의 실적 개선에 초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단기 실적보다는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 빠른 변화 속에서 Re-rating이 가능한 기업에 보다 초점이 필요.

금융 Overview

- 은행 – 실적 해석에 대한 차이가 분분: 은행주는 0.1% 하락, 사실상 횡보세 시현. 은행들의 표면적인 이익은 양호했으나, 매크로 리스크 확대와 더불어 은행들의 부실채권 증가 및 NPL 커버리지 비율의 하락이 우려 요인으로 부각. 하지만, 부실채권의 경우 은행들이 NPL매각에 다소 보수적으로 나선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는 가운데, 은행들의 견조한 대출 성장률 및 NIM 상승세를 감안할 때, 부실에 대한 buffer가 충분히 축적되고 있음에 주목 필요. 더 나아가, 매크로 리스크가 부각되는 만큼,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본비율 규제 완화 등이 현재 진행 중인 점 등도 고려 필요.
- 증권 – 차익실현 니즈 부각: 증권 업종 주가는 4.5% 하락하며 KOSPI 상승 (w-w +1.9%)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음. 핵심은 실적 시즌 본격 진입에 따른 차익실현 니즈 확대로 판단. 키움증권은 컨센서스를 약 20%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당일 주가가 약 6% 하락. 키움의 경우 KOSPI 대형주 중심 거래 비중 확대에 따른 M/S 소폭 하락이 관찰된 점은 우려요인이나, 근본적 경쟁력 하락 요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익실현을 위한 단기 이벤트 정도로 판단. 중장기 증시로 자금흐름이 지속될 전망인 만큼, 조정 국면에서는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
- 보험 – 정체 흐름 지속: 보험 업종은 w-w 0.7% 하락하며, KOSPI 대비 언더퍼폼: 보험업종의 경우 회사 간 차별화 없이 정체된 주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하, 계리적 가정 변경 등 규제 리스크 부담이 투자심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관건은 다음주 발표될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회사별 수익성 중심 기조 방향성 전환에 따른 지표 추이(신계약 CSM, 예실차, 경험조정 등)가 될 것으로 판단.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4/26) AI가 카드 소비 리포트 제공** - KB는 마이데이터 가입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4세 이하로 낮추고, 청소년들이 일주일 단위 지출 통계를 확인하면서 용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앱에 지출 홈페이지도 새로 마련. - 카카오페이는 AI를 활용 개인 맞춤형 소비패턴 분석 기능을 제공.	**AI활용 금융서비스 확대 - 하지만, 초점은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여전히 AI를 통한 분석 수준에 그치는 내용. 하지만, 이미 시장은 Agentic AI를 활용, AI가 단순히 어떤 결제 수단이 좋은지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결제까지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 하지만, 이러한 Agentic AI를 통한 결제의 경우, Visa나 MasterCard 같은 카드 결제 네트워크 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마진 축소 및 브랜드 로열티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뜻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 결국, 이러한 변화 속에서의 대응이 향후 금융사들의 관건이 될 전망.
	(4/27) 카드사 실적 희비 교차 - 1Q 주요 카드사의 1분기 순이익은 신한카드가 15% y-y 감소한 1,154억원을 기록한 반면, KB는 27.2% 증가한 1,075억원을 기록하며 격차를 빠르게 축소. 참고로, 신한카드는 희망퇴직 단행에 따른 일회성 비용을 인식한 반면, KB는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가 양사간 격차 축소를 견인. - 현대가 647억원, 하나 575억원, 우리 439억원 등을 기록.	**카드사 업계 전반적인 실적은 정체 - 상위사와 하위사간 격차 축소:** 6개 전업 카드사 합산 당4기순이익은 5,45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3억원 감소. 이러한 가운데, 카드사간 격차는 오히려 축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지속 - 카드사들의 뚜렷한 실적 개선 난망:** 카드사들은 결제 수수료 수익은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국내 소비 성장 속도와 카드 침투율,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 규제에 기인. 이에 대한 돌파구로 카드론과 같은 대출 시장을 강화해야 하지만, 가계대출 관리강화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 **해외 카드사들은? - 제휴 서비스 강화 통해 점유율 제고 모색:** 참고로 해외 카드사들의 경우, 제휴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음. 가령, 항공사나 호텔 등과의 제휴를 맺고 카드 사용에 따른 제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Lock-in 및 사용액 증대를 추구.
	(4/28) 4대 금융지주 부실대출 역대 최대치 기록 - 4대 금융지주의 NPL 잔액은 1Q 기준 13.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 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부실률 상승에 기인. - 특히, 은행에 비해 서민금융 비중이 높은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원인. 금융지주 NPL 중 비은행 비중은 62.7%로 상승.	**NPL 금액을 상승. 하지만 중요한 것은 NPL비율:** 금융그룹들의 자산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등의 요인으로 인한 NPL금액 상승은 불가피. 다만, NPL비율이 중요한데, 여전히 NPL비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오히려 Credit cost는 1Q 중 하향안정화 시현. **NPL 상승과 충당금 적립률 하락은 어떻게 해석?:** 은행들은 이와 관련 하여 NPL로 신규 편입된 자산들이 있었으나, 이미 해당 자산에 대한 담보가 충분히 설정되어 있는 만큼, 은행의 신규 충당금 부담은 제한되었다고 언급. **관건은 NPL 정리:** 은행들은 이번 분기 NPL 증가와 관련, 부동산 시장 이슈로 인해 NPL 매각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언급. 즉, 시장이 좋지 않은데, NPL 매각에 무리하게 나설 경우, 오히려 해당 물건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충분한 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였음을 언급. 결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나 혹은 NPL 정리를 위한 별도의 노력 등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
	(4/29) 머스크의 'X'에 금융 기능 추가 -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에 금융 서비스를 탑재한 X머니 플랫폼을 이달 중 선보일 예정. 트위터 인수 3년만에 결제 송금 저축을 모두 아우르는 금융 비즈니스로 확장, 슈퍼앱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습. - 현재는 일부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X머니는 공격적인 혜택을 통해 초기 이용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 현금 저축 시 6% 금리 제공, 결제 시 3%의 캐시백 제공, 무료 P2P 송금, 이용자 X아이디가 새겨진 메탈 비자 체크카드 발급 등이 대표적. - 올해 하반기에는 X에 암호화폐 및 주식거래 기능도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 다만, 규제는 걸림돌. 미국에서 결제 플랫폼 운영을 위해서는 50개 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X머니는 뉴욕 등을 제외한 44개 주에서만 허가를 받은 상태.	**여전히 실제 실행 여부는 봐야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결국 인허가 이슈가 남아 있는 상황. **관건은 수익 모델의 정립:** 현금 저축 시 6% 금리와 결제 시 3%의 캐시백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 이를 위해서는 X가 슈퍼앱으로 거듭나서 결제와 선정산 등이 X내에서 모두 이뤄져야 할 것. 결국, 이를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는지가 관건. 그렇지 못할 경우, 초기에 제시한 금리와 캐시백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들의 이탈로 이어지며 지속가능한 모델로 자리잡기 힘들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애플 통장과 카드 등의 사례는 이를 방증.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4/29) 롯데카드 제재 수위에 업계 촉각** - 금감원이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면서 카드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 그간 내부 정보 유출 사고에 한해서만 적용되던 영업정지 처분이 해킹 사고로 확대될 경우, 카드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 - AI를 활용한 해킹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100% 차단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징벌적 제재 외에 피해 최소화 유도를 위한 유인책 필요성도 제기. - 더 나아가, 우리와 신한카드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유출 사고인 점을 감안하면, 더 강한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	**더욱 높아진 IT보안의 중요성:** 비단 카드사의 이슈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IT 보안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지할 정도로 높아진 상황. 특히 AI를 통한 해킹 능력의 강화까지 보도된 상황에서 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음. **미토스의 경고 - 개별 기업을 넘어선 대응 역량 체계 구축에 대한 니즈 확대:** 앤트로픽에 따르면 미토스는 인간이 며칠에 걸리는 해킹 과정을 몇 시간만에 해낸 것으로 알려짐. 이는 AI의 발전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자, 기존과는 다른 대응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 즉, 사후 제재를 넘어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중요도 또한 높아졌음을 인지 필요.
	(4/29) 금감원장, 주담대 위험가중치 단계별 강화 - 금감원장은 금융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 이는 바젤 III 규제의 역설적인 현상이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단계별로 더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 - 이와 동시에 부동산 쏠림 완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감독 정책을 설계할 것으로 언급.	**주담대 위험가중치 강화 - 다른 생산적 금융의 가중치 완화와 맞물리는 방식이 향후 관건:** 은행의 주담대에 대한 일방적인 위험가중치 강화는 은행의 자본비율 하락에 따른 유동성 공급 역량 전체의 저해를 야기 가능. 이에 향후 관건은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강화된 만큼, 다른 부문의 완화가 관건. 이를 통해 은행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관건 판단.
	(4/30) ELS 민사소송 판결- 투자성향과 투자경험이 주요 판단 기준 - ELS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문 7건을 보면, 법원은 공통적으로 투자자가 스스로 기재한 투자성향과 과거 ELS 투자 경험을 근거로 은행의 책임을 제한. - 가령,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지만, 법원은 투자자정보확인서에 적극투자형으로 직접 기재한 점을 주목. 이와 더불어 ELT 상품에 19차례 투자해 수익을 낸 경험을 감안, 상품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투자자로 판단. - 이 같은 판결 흐름은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영향. 금융위는 2개월째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는 향후 행정소송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 또한, 은행권이 지난 3년간 금감원 기준에 따라 자율배상을 상당 부분 진행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	**ELS 부담 경감에 대한 기대 유효:**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강화에 대한 요구는 물론 최근 매크로 리스크의 확대 등은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니즈를 높이는 요인.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증대를 쉽지 않게 하는 요인.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 및 실적 부담 악화는 오히려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가능. 결국 당위론적으로 과징금의 취지인 사건의 재발방지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 제고와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역량 제고라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이 향후 관건. **은행들은 추가적인 충당부채 적립:** KB와 하나금융은 1Q 중 관련 충당부채를 추가적으로 적립. 이로 인해 관련 부담을 더 완화시켜 놓은 만큼 관련 부담은 일부 완화해 놓은 상황인 점도 고려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증권	**(4/30) '빚투' 연일 사상최대…증권사 다시 신용융자 일시 중단** 코스피 사상 최고 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융자 잔고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35조원 돌파 후에도 추가 증가세 유지. 증권사들이 자기자본 대비 100% 한도 소진으로 신규 신용융자 거래를 다시 일시 중단하는 흐름(한국경제TV 보도). 개별 증권사별로 일부 종목 종목군 변경, 증거금률 상향, 신규 신용 중단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 병행. 빚투 증가와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소진이 반복되는 사이클 재현.	**신용융자 한도 소진 반복은 증권사의 자기자본 확충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요인:** 증권사별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여력 차이가 고객 유치 경쟁의 변수로 부상, 자본력 우위 대형사에 유리한 구조. 한도 소진으로 인한 신규 신용 중단은 단기 이자수익 기회 손실이나, 반대로 과도한 레버리지 누적에 따른 건전성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도 수행. 신용잔고 과열 시 증시 조정 국면에서 반대매매 연쇄 충격 가능성이 상존, 신용잔고 수준과 증시 변동성 상관관계를 주요 리스크 지표로 면밀히 관찰 필요.
	(4/28) 서학개미 귀환에 미래에셋 RIA 한 달 만에 2,600억 흥행…키움도 가세 미래에셋증권이 해외주식 타사 이전 서비스(RIA)를 도입한 지 한 달 만에 2,600억원의 서학개미 자금을 유치. 코스피 활황 속에서도 해외주식 투자 수요가 병행 증가하는 가운데, RIA 서비스가 해외주식 고객 유치의 새로운 경쟁 수단으로 부상. 키움증권도 RIA 서비스 강화에 나서는 등 서학개미 유치 경쟁이 대형 증권사 전반으로 확산. 국내 증시 활황과 해외주식 투자 병행이라는 투자자 행동 패턴의 구조적 정착이 배경.	**증권사 간 자산이전 가능성 확대에 주목:** RIA를 통한 서학개미 고객 확보는 수수료 수익 증가는 물론, WM 고객 기반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적 긍정 요인. RIA 흥행은 타사 이전 장벽 해소로 유동성을 높여 대형 플랫폼 증권사에 유리한 경쟁 구도를 형성. 국내·해외 주식 투자 병행 트렌드는 증권사의 고객당 예탁자산 및 약정금액 증가로 직결, 2Q26 이후에도 리테일 수익 기반의 구조적 개선을 지지하는 요인. 연금저축펀드(2년새 140% 증가)·IRP·ISA 등 세제 혜택 상품과 연계한 해외투자 서비스 고도화가 증권사 WM 사업의 경쟁력 분기점으로 부상.
보험	**(4/27) CSM은 쌓였는데 순익은 꺾였다…금융지주 보험사 '미래이익의 역설'** 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1Q26에 CSM은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 엇갈린 결과를 보고. 이익 감소 원인은 장기보험 손해율 악화, 계리가정 보수화(2Q 본격 적용 예고)에 따른 선반영 효과, 비경상 투자손익 감소 등이 복합 작용. 반면 CSM 증가는 신계약 유입 확대 및 신계약 가치 유지를 시사. IFRS17 도입 3년차에 접어들며 단기 순익보다 CSM·보험손익 구조의 지속성이 투자 판단의 핵심 지표로 부상.	**CSM 안정성 제고가 우선순위:** 순익 감소에도 불구, CSM 순증은 보험사 장기 이익 구조 개선 신호로 긍정적. 2Q26부터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정식 적용으로 추가 이익 감소 압력이 예상되나, 이는 일회성 조정 성격이 강하며 이후 CSM 안정 상각 구조 정착 시 중기 이익 가시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 CSM 지속 성장·보험손익 변동성 축소 보험사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IFRS17 체제에서 유효한 전략으로 판단.
	(4/28) 손보사, 5월 보장한도 다시 축소…손해율 부담에 수술비 조건 강화·간병인일당 축소 주요 손보사들이 5월을 기점으로 장기보험 보장한도를 추가 축소 예정. 수술비의 경우 보장 조건 강화(예: 종별 수술 인정 범위 제한), 간병인일당 보장한도 축소가 핵심. 보험사들은 지속적인 손해율 상승에 대응해 신계약 판매 단계에서부터 고위험 보장을 자발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 중.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강화와 5세대 실손 출시가 맞물리며 장기보험 상품 구조 전반에 걸친 보수화 흐름이 가속.	**수익성 중심 전략 전환세 뚜렷:** 수술비·간병 등 고빈도 청구 담보 축소는 손해율 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이나, 과도한 보장 축소가 소비자 선택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경우 당국의 추가 규제를 유발할 리스크도 상존. 손보사들의 보장한도 자발적 축소와 당국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강화가 동시에 진행, 전반적인 신계약 물량은 연중 축소될 것으로 전망. 5세대 실손 출시와 함께 보장 설계의 전반적 보수화 진행으로, 보험사별 차별화된 신담보 개발 역량이 향후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5-04 (월)	3월 온라인 쇼핑동향	미국 3월 공장주문
		유로존 4월 제조업 PMI 확정치
		독일 4월 제조업 PMI 확정치
		영국, 일본, 중국 증시 휴장
2026-05-05 (화)	국내 증시 휴장	미국 4월 ISM 비제조업지수
		미국 2월, 3월 신규주택매매
		미국 4월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미국 3월 구인 및 이직(JOLTs) 보고서
		일본, 중국 증시 휴장
2026-05-06 (수)	4월 소비자물가동향	미국 4월 ADP취업자 변동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주간 원유재고
		유로존 4월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유로존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독일 4월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영국 4월 CIPS / S&P 글로벌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일본 증시 휴장
2026-05-07 (목)		미국 1분기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잠정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2월, 3월 건설지출
		미국 3월 소비자신용지수
		미국 4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유로존 3월 소매판매
		독일 3월 공장수주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2026-05-08 (금)	3월 국제수지(잠정)	미국 4월 고용동향보고서
		미국 3월 도매재고지수
		미국 5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잠정치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독일 3월 산업생산
		영국 4월 할리팩스 주택가격지수
		일본 4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
		일본 3월 경기동향지수(예비치)

자료: 삼성증권

Company event	국내	해외
2026-05-06 (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KG파이낸셜 실적	
2026-05-07 (목)	KG이니시스 실적	

자료: 각 사,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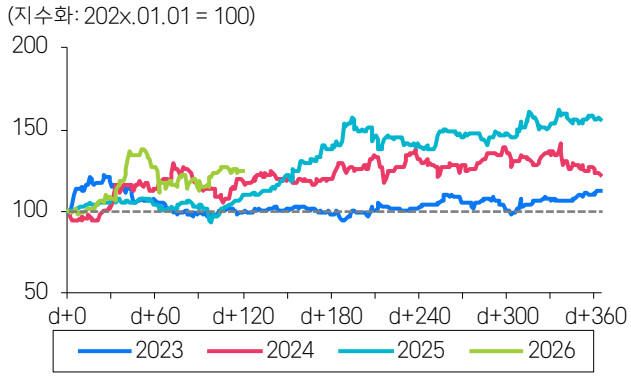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5,245.2	6,598.9						1.9%	30.6%	158.1%	56.6%
	KRX은행	211.0	1,631.8						(0.1%)	10.8%	78.0%	25.2%
	KRX증권	94.2	2,685.4						(4.5%)	9.8%	200.7%	75.5%
	KRX보험	99.3	3,269.5						(0.7%)	6.7%	78.7%	22.1%
	결제 지수**	1.584	n/a						(1.3%)	19.0%	76.5%	20.7%
은행	KB금융	59.8	160,500	57.1	1.0	11.4	8.7	12.9	2.0%	13.1%	77.9%	28.7%
	신한지주	47.4	99,900	53.6	0.9	10.4	8.5	15.5	(0.1%)	13.9%	94.4%	29.9%
	하나금융지주	35.1	127,900	50.8	0.8	10.6	7.9	12.3	3.7%	20.0%	98.3%	35.9%
	우리금융지주	24.5	33,350	44.5	0.7	10.6	7.0	12.1	(4.9%)	4.1%	88.3%	19.1%
	기업은행	18.0	22,600	36.0	0.6	8.5	6.9	2.2	1.1%	5.9%	47.3%	7.9%
	BNK금융지주	5.8	18,730	45.1	0.5	8.3	6.6	9.5	(1.4%)	4.7%	81.0%	18.0%
	JB금융지주	5.1	27,300	42.2	0.5	9.5	5.7	21.9	(4.9%)	(8.1%)	59.9%	6.4%
	iM금융지주	3.1	19,100	51.8	0.9	13.2	6.8	6.6	0.0%	14.3%	85.8%	22.8%
	카카오뱅크	11.6	24,350	50.0	1.6	8.8	18.7	29.1	(3.8%)	1.7%	9.2%	12.7%
증권	미래에셋증권	36.3	64,800	60.9	2.7	12.9	22.0	17.5	(3.1%)	5.2%	449.2%	178.7%
	NH투자증권	12.0	33,650	41.1	1.4	12.9	11.2	14.9	(4.1%)	13.7%	119.2%	59.5%
	한국금융지주	13.4	240,000	25.0	1.2	14.2	9.7	-19.1	(7.3%)	18.5%	189.2%	48.4%
	키움증권	10.4	398,000	29.5	1.6	20.7	9.0	26.4	(11.5%)	(3.0%)	190.5%	37.5%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8.7	111,700	50.0	1.7	22.8	8.2	14.9	(2.4%)	0.3%	(10.0%)	(1.2%)
	삼성화재	20.6	461,000	45.1	1.0	10.1	10.9	12.0	1.1%	4.7%	23.1%	(7.2%)
	삼성생명	49.9	249,500	46.3	0.6	3.7	15.9	17.8	2.0%	18.5%	189.4%	58.3%
	DB손해보험	11.0	167,600	32.3	1.1	16.6	6.6	9.0	(4.2%)	2.3%	83.8%	27.8%
	한화생명	4.2	4,885	16.4	0.3	5.6	6.3	37.8	(1.6%)	10.3%	84.3%	50.1%
	현대해상	2.6	30,400	11.7	0.5	17.5	3.3	18.3	(0.5%)	0.8%	36.9%	(1.3%)
결제	카카오페이	7.5	55,700	n/a	n/a	6.9	58.9	180.2	0.7%	14.0%	76.0%	13.4%
	NHN KCP	0.8	19,650	n/a	n/a	17.9	14.0	28.8	(2.0%)	25.3%	153.9%	31.8%
	KG이니시스	0.3	11,450	n/a	n/a	7.1	5.5	9.9	1.8%	14.3%	31.3%	12.0%
	KG모빌리언스	0.2	5,230	n/a	n/a	10.3	5.1	12.1	(2.4%)	9.9%	23.8%	11.3%
	나이스정보통신	0.3	28,050	n/a	n/a	9.1	6.0	39.4	(2.1%)	14.7%	50.9%	10.7%

참고: 4/30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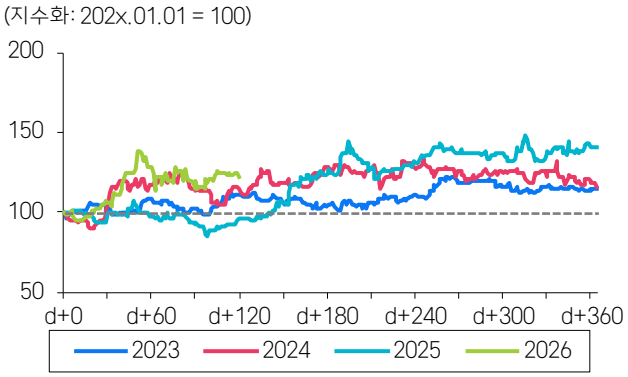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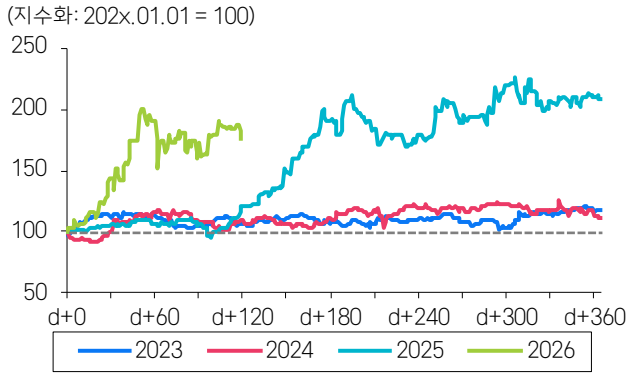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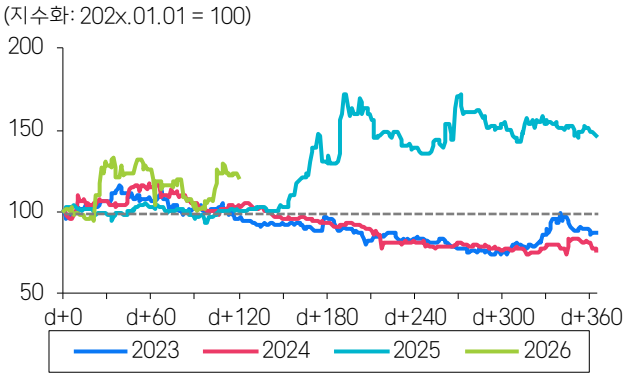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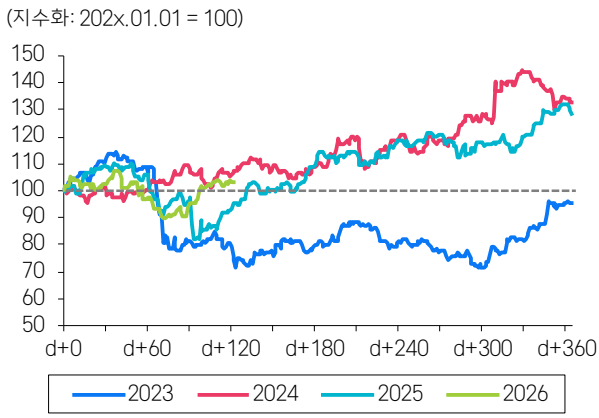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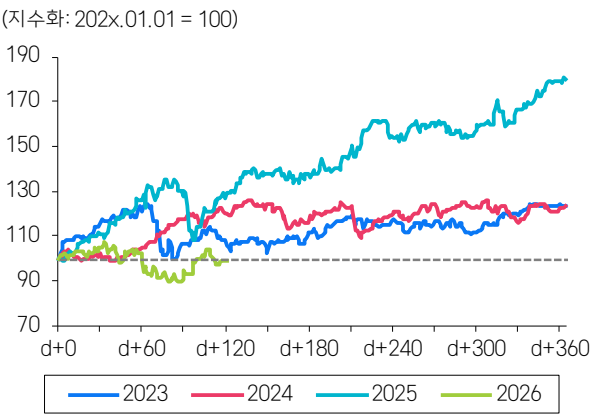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37.3	80.2	2.3	17.1	14.0	11.5	1.4	6.1	23.7	(3.0)
		Bank of America	377.8	103.1	1.3	11.7	11.9	17.5	2.3	7.8	29.6	(3.2)
		Citigroup	218.5	117.2	1.1	9.7	11.8	54.8	(0.4)	10.6	80.5	9.2
		Wells Fargo	247.3	96.5	1.4	12.8	11.6	11.5	1.8	0.3	9.5	(13.3)
		PNC Financial	88.7	75.5	1.5	12.7	12.0	10.8	0.4	4.3	33.3	5.7
	유럽	Banco Santander	178.9	63.9	1.4	13.6	9.7	11.2	1.8	5.8	63.8	3.1
		Unicredit	116.1	82.1	1.5	16.7	8.9	4.6	2.5	4.7	24.7	(7.5)
		BBVA	124.3	86.1	1.8	18.8	9.3	15.5	1.2	0.2	53.9	(6.2)
		ING Group	84.8	80.9	1.4	13.1	10.7	6.9	3.8	7.9	36.4	3.8
		Lloyds	78.1	83.0	1.3	13.6	10.2	44.5	0.5	0.3	39.2	0.0
		Barclays	80.4	66.4	0.9	10.6	9.1	19.8	2.3	6.1	44.1	(8.9)
	일본	Mitsubishi UFJ FG	211.6	59.7	1.5	10.9	14.2	22.9	1.5	1.3	61.0	12.2
		Sumitomo Mitsui FG	135.1	53.9	1.4	10.8	13.4	37.6	3.6	3.1	68.8	9.9
		Mizuho FG	104.4	29.6*	1.5	11.4	13.8	39.0	4.3	3.6	95.1	17.6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72.0	30.2*	0.6	9.1	6.8	3.1	(3.2)	1.0	31.9	11.8
		China Construction Bank	300.3	29.8*	0.6	9.5	6.7	1.3	(1.9)	3.9	37.6	14.2
		Agricultural Bank of China	347.3	N/A	0.7	9.7	7.3	6.2	(1.8)	7.0	27.7	5.2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20.6	N/A	1.4	6.0	22.5	(32.3)	0.8	(0.8)	(12.2)	(5.9)
		AIG	41.8	79.1	1.0	10.1	10.6	흑전	4.8	4.4	(5.8)	(7.9)
		Travelers Insurance	64.8	83.5	1.9	18.6	10.8	3.1	0.7	3.6	14.0	5.1
	유럽	Allianz	173.6	81.0	2.3	18.5	12.8	9.6	0.3	5.7	5.1	(0.4)
		AXA	100.4	59.6*	1.8	17.1	10.0	(10.0)	(0.2)	1.1	(3.3)	(0.0)
		Generalli	68.6	59*	1.7	14.0	12.5	10.6	0.6	6.4	16.9	6.6
	일본	Tokio Marine	87.4	40.1*	2.5	19.9	13.2	(0.5)	(1.2)	(2.1)	25.6	21.9
		Daiichi Life Insurance	32.8	58.9	1.4	12.4	12.4	(1.0)	0.9	(3.4)	40.3	9.2
	중국	Ping An Insurance	152.6	36.2*	1.0	13.7	7.7	6.3	3.4	4.7	35.0	(3.3)
		China Life Insurance	139.0	20.1*	1.2	19.3	6.4	(17.7)	5.4	14.5	97.4	4.5
		PICC P&C Insurance	39.8	38.2*	1.0	13.5	7.6	1.5	(1.4)	(3.4)	(6.0)	(14.4)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83.2	107.5	2.5	16.3	15.6	15.7	(0.3)	7.0	63.2	5.1
		Morgan Stanley	300.5	73.0	2.8	17.6	16.0	16.1	1.1	14.7	58.2	7.1
		Charles Schwab	163.8	99.2	3.4	23.4	15.7	25.1	3.4	(2.4)	10.1	(8.4)
		Robinhood	66.4	41.2	6.3	18.8	37.6	(4.3)	(13.0)	6.9	51.6	(34.9)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18.1	N/A	6.3	35.1	18.1	14.7	1.8	6.5	15.5	(13.6)
결제	미국	VISA	633.2	N/A	16.9	64.1	25.7	25.2	6.0	9.1	(5.6)	(6.5)
		MasterCard	437.9	17.9*	49.2	219.8	25.6	17.3	(1.7)	0.4	(11.4)	(13.2)
		PayPal	45.4	5.5*	2.2	23.0	9.7	(4.0)	(0.1)	11.2	(25.0)	(13.6)
	유럽	Adyen	35.5	N/A	4.6	21.3	24.3	17.1	(1.7)	13.4	(34.7)	(30.3)
핀테크	미국	Block	42.8	N/A	1.8	9.6	23.6	45.1	0.3	20.1	54.3	10.3
		Upstart	3.1	0*	3.6	20.7	31.7	129.4	(2.2)	28.0	(34.6)	(25.1)
		Affirm	22.5	0*	5.4	10.4	62.1	624.7	6.0	45.8	29.0	(9.3)
	중국	LuFax	1.7	N/A	0.0	N/A	(3.1)	흑전	1.6	4.8	(32.8)	(23.8)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4/30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